

일류국가의 길*

강 만 수 (산은금융그룹 회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쟁쟁한 경제학자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경제학회 하성근 학회장님, 이만우 차기 학회장님, 52개 학회 학회장님, 회원 여러분, 「201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한국경제학회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의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면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국가 위기를 1974년 사무관, 1997년 차관, 2008년 장관으로서 세 번이나 맞이했기에, 학자 여러분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까 하여 2008년 위기대응 과정에서 느낀 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위기의 본질

2008년 찾아온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본질은 한마디로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중국 등 열심히 일하는 개미국가들과 남유럽 배짱이 국가들 간의 글로벌 불균형이 확대되고,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통제 없는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선진국의 자산버블이 확산되었습니다.

책임없는 CEO 지배구조는 탐욕과 사기가 만연하는 폰지게임을 부추겼고, PIGS 국가들로 대표되는 ever-growing population을 바탕으로 형성된 채무주의(debtism)는 ever-shrinking

* 본 원고는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개최된 한국경제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201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리셉션 (2012. 2. 20(월),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벨뷰 스위트), 축사 내용을 정리한 것임.

workforce를 맞아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번 세계경제위기의 전개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紙는 첫 G20 정상회담이 열린 날 1면 헤드라인에서 Historic power shift로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일극(unipolar) 체제에서 G7 체제를 거쳐 세계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G20 체제에 이르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생존게임(survival game)도 치열해 졌습니다. Citibank, AIG, GM 이 파산위기를 맞으면서,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글로벌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

우리는 글로벌 위기를 맞아 10여년 전 겪었던 경제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preemptive)이고, 확실(decisive)하며, 충분한(sufficient)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금리인하, 환율실세화, 통화스왑 체결,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비전이었던 「747」공약은 위기극복을 위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비판이 많았지만, 세계는 한국경제의 회복세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을 “Textbook example of fiscal & financial policy”, 교과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윌리엄 페šek은 “Hats off to officials in Seoul”, 서울관료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은 경제규모는 인구가 20배 많은 인도와 비슷하고 수출은 영국을 추월한, “no longer underdog”이라고 했습니다.

100년 전에는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 새우가 되어 식민지로 전락했지만, 지금은 작지만 영리한 돌고래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대한민국은 수출 12위였으나 2010년에 수출 7대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국가경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경상수지를 적자에서 흑자 기조로 돌렸습니다. 외환보유고도 3,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선진국의 규칙을 따라가던 Rule Taker가 G20 서울 정상회의의 장국이 되어 Rule Maker로 올라섰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되는 환율 결정 시스템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change rate flexibility to reflect underlying economic fundamentals”). 정부는 과도한 환율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에 합의했습니다(“mitigate the risk of excessive volatility in capital flows”). 많은 비판을 받아 온 환율주권에 대한 우리의 구상이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코페르니커스적 전환입니다.

감세정책의 본질은 성장을 통한 “증세”정책입니다. 하우저의 법칙(Hauser’s Law)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율의 인상·인하에 관계없이 세입은 GDP의 18~19%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OECD에서는 '70년 이후 회원국들의 경기부양책을 검토한 결과,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버드대 맨큐 교수도 1달러의 지출은 1.57 달러의 GDP를 창출하는 반면, 1달러 감세는 3달러의 증가효과가 있다며 기존 케인즈의 감세 승수효과를 정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잘못된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양극화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반대세력의 압박도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외국에 유학가는 것은 말이 없고 외국학교를 한국에 불러와 중산층 자녀들이 다니도록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외국 의료 관광객을 위한 영리병원 설립도 반대합니다.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저는 2008년 위기가 도래했을 때 위기가 적어도 10년은 계속 될 것이라는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믿었습니다. 선진국들의 과감한 정책으로 2009년 위기가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지만, 민간부문 부채가 정부부채로 이전되었을 뿐입니다. 선진국, “베짱이”의 과도한 소비와 신흥국, “개미”의 과도한 저축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저축하고 더 투자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비와 차입이 아닌 저축과 투자에 의한 실물중심 자본주의로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나태와 거품, 탐욕과 투기의 경제가 아닌 절제와 근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경제를 통해서만 강자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성장이 서비스산업과 복지확충의 전제입니다. 포퓰리즘은 쇠퇴 아니면 부담의 대물림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류사의 양대 기적이 정치에서 2500년여 만에 재건국한 이스라엘과 경제에서 한 세대만에 선

진국이 된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紙는 한국은 개도국이 따라야 할 모범사례이지만, 이제 다른 나라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판이 압도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 부가가치세 도입, 환율주권론은 결과로 비판을 대답했습니다. 치수사업과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에도 깊은 성찰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이 레저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인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이제 디지털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차별화(Digital divide)와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에 의해 중개상, 대리점, 오퍼상 등 중간층이 사라지고 1등만 살아남는 시대라고 합니다.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트렌드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99:1의 대립적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질서로 재편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글로벌 위기를 공세적으로 활용하여 살아남는 강자가 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경제학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깥에서는 한국경제의 성공을 말하지만 우리는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는 긍정적인 사고로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국경제학회 60주년과 201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